

2026. 8. 3

소비재/플랫폼 Weekly

화장품 7월 수출: 고성장 지속, 지역과 품목의 확장

Analyst 오린아 _ 유통/화장품 lina.oh@ls-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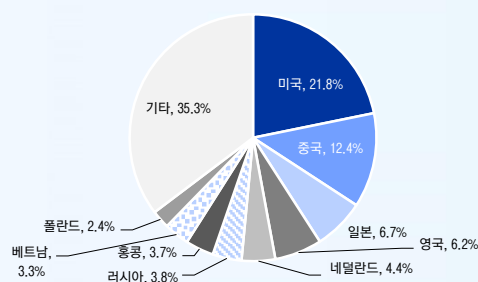


체크해야 할 업종 이슈

- ✓ 2026년 7월 화장품 수출액: YoY 36.3% 증가한 10억 9,800만달러 기록
- ✓ 7월 미국향 화장품 수출액은 YoY 43.2% 증가한 2억 3,900만달러로 전체 수출 증가율 상회
- ✓ 7월 미국향 헤어케어 수출액은 YoY 89%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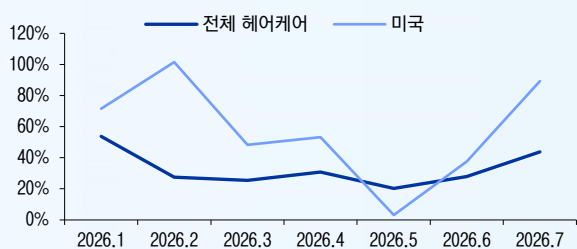
이번주 업종 코멘트/전망

그림 2 2026년 7월 화장품 국가별 화장품 수출 비중



자료: 관세청,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헤어케어 제품 2026년 상반기 국가별 수출액 성장률



자료: 관세청, LS증권 리서치센터

7월 화장품 수출: 지역/품목 확장

2026년 7월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6.3% 증가한 10억 9,800만달러를 기록했고, 1~7월 누적 수출액도 26.8% 증가한 68억 2,600만달러를 기록. 역대 7월 최고치이자 5대 유망 소비재 중 가장 큰 수출 규모로, 이미 높아진 기저에도 30% 이상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유통망 확대와 K뷰티 소비층 확산에 따른 구조적 성장으로 판단. 지역별로는 미국이 성장을 주도. 7월 미국향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3.2% 증가한 2억 3,9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성장률을 상회. 유럽도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 중. 7월 영국과 네덜란드향 수출액은 각각 329.1%, 295.4% 증가했고, 폴란드도 11.9% 성장. 미국에서 아마존과 틱톡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검증된 브랜드들이 세포라, 얼타 및 현지 H&B 채널로 진입하고, 유럽에서도 오프라인 유통망 확대가 이어지면서 K뷰티의 성장 기반이 국가와 채널 양쪽에서 넓어지고 있음.

헤어케어는 전체 화장품 수출을 웃도는 성장세가 지속 중. 2026년 7월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3.8% 증가한 6,103만달러, 1~7월 누적 수출액은 32.3% 증가한 3.5억달러를 기록. 특히 미국향 수출은 7월 89.2% 증가한 1,565만달러, 1~7월 누적으로는 53.6% 증가한 9,270만달러로 전체 성장을 주도. 지역 다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폴란드, 브라질, 캐나다의 1~7월 수출은 각각 443%, 95.4%, 74.6% 증가했고, 파라과이향 수출도 7월 1,301% 급증. 미국에서 검증된 K헤어케어 수요가 유럽, 남미, 북미 인접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스킨케어 대비 수출 기반이 낮고 온라인 판매 성과가 현지 오프라인 입점으로 이어지고 있어, 헤어케어는 하반기에도 K뷰티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품목이 될 전망.

화장품 7월 수출: 고성장 지속, 지역/품목 확장

K뷰티 수출, 미국이 이끌고 유럽이 더한다

올해 7월에도 화장품 수출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관세청 잠정치 기준 2026년 7월 화장품 수출액(HS 3304)은 전년동기대비 36.3% 증가한 10억 9,800만달러, 1~7월 누적 수출액은 26.8% 증가한 68억 2,6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7월 최고치를 경신한 수준이며, 5대 유망 소비재 중 가장 큰 수출 규모를 기록했다. 이미 수출 규모가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도 30%를 웃도는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수출 호조는 글로벌 유통망 확대와 K뷰티 소비층 확산에 따른 구조적인 성장에 가깝다고 판단한다.

그림1 2026년 7월 화장품 수출 YoY 36.3% 증가한 10억 9,800만달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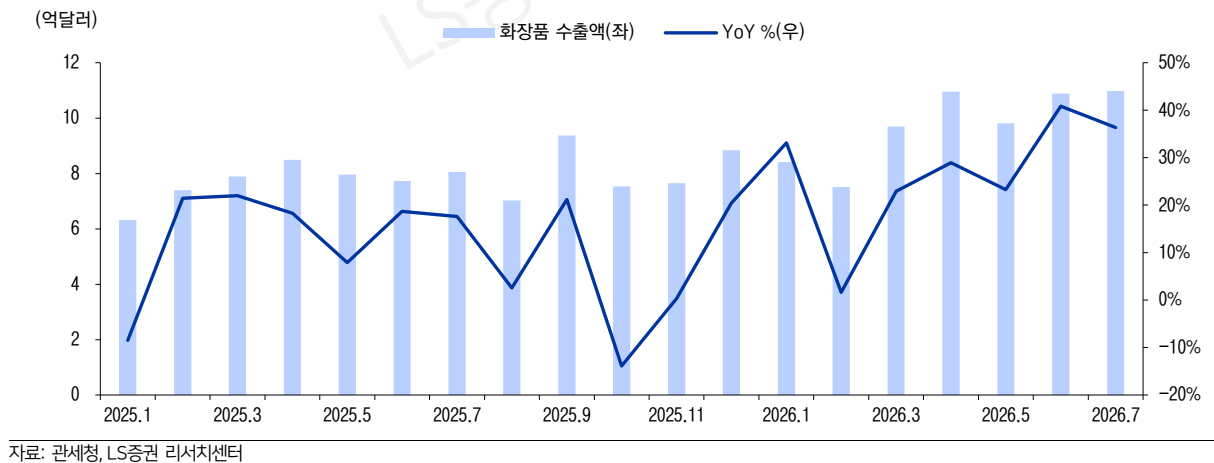


그림2 2026년 7월 화장품 국가별 화장품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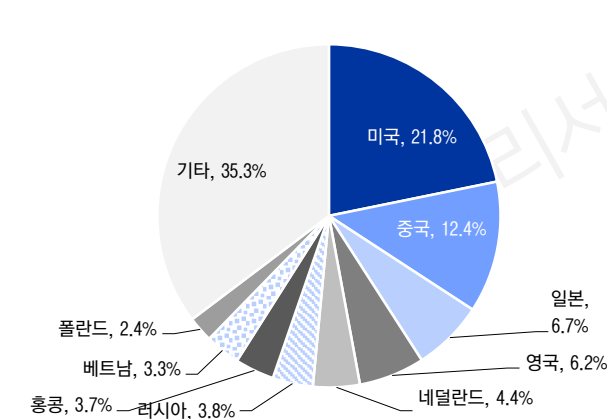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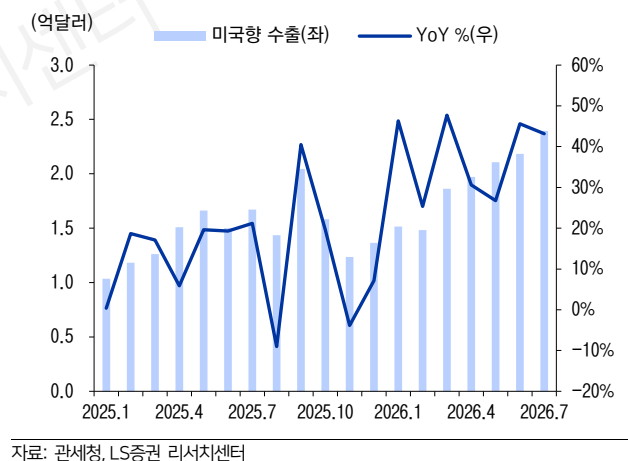


그림3 2026년 7월 미국 화장품 수출 YoY 43%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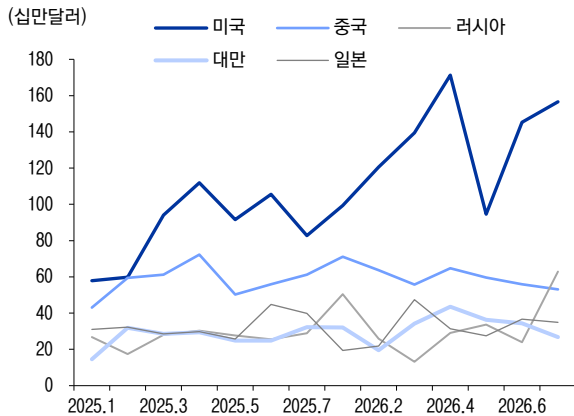


성장의 중심은 여전히 미국이지만, 유럽이 새로운 축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7월 미국향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3.2% 증가한 2억 3,900만달러로 전체 수출 증가율을 상회했으며, 1~7월 누적으로도 37.6% 증가한 13억 5,1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7월 영국과 네덜란드향 수출액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329.1%, 295.4% 증가했고, 폴란드도 11.9% 성장했다. 미국에서 아마존과 틱톡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검증된 브랜드들이 세포라, 얼타 및 현지 H&B 채널로 진입하고, 유럽에서도 현지 오프라인 유통망이 확대되면서 K뷰티의 성장 기반이 국가와 채널 양쪽에서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헤어케어, K뷰티 수출의 다음 성장축으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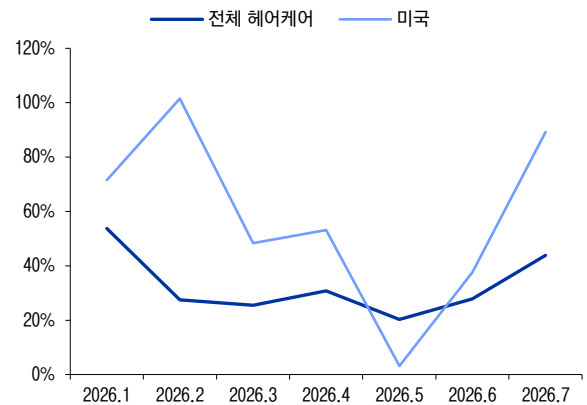
전체 화장품 수출 가운데 헤어케어의 성장세는 더욱 돋보인다. 2026년 7월 헤어케어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3.8% 증가한 6,103만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화장품 수출 증가율을 상회했고, 1~7월 누적 수출액도 32.3% 증가한 3.5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향 헤어케어 수출은 7월 89.2% 증가한 1,565만달러, 1~7월 누적으로는 53.6% 증가한 9,270만달러로 전체 헤어케어 성장을 주도했다. 폴란드와 브라질, 캐나다의 1~7월 수출도 각각 443%, 95.4%, 74.6% 증가했고, 7월에도 6월에 이어 파라과이향 수출이 1,301% 증가하는 등 눈에 띄는 모습이 나타나 신규 지역으로의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올해 상반기 미국 중심으로 확인됐던 K-헤어케어의 성장세가 7월에는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K뷰티 수요가 스킨케어에서 두피 세럼과 헤어 트리트먼트 등 기능성 헤어 제품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 판매 성과가 현지 오프라인 입점으로 연결되고, 스킨케어 대비 아직 수출 기반이 낮아 신규 국가와 채널 진입에 따른 성장 여력도 크다는 점에서 헤어케어는 하반기에도 K뷰티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품목이 될 전망이다.

그림4 헤어케어 제품 월별 수출액 추이



자료: 관세청,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헤어케어 수출 성장률: 전체 금액 대비 미국이 상회



자료: 관세청, LS증권 리서치센터

표1 국내 소비재/플랫폼 주간 수익률

	현재가 (pt, 원)	시가총액 (억원)	수익률 (%)							P/E			P/B		
			1W	1M	3M	6M	12M	YTD		2025	2026E	2027E	2025	2026E	2027E
코스피	6,595	54,451,937	-1.4	-22.2	-0.1	26.2	103.2	56.5	-	-	-	-	-	-	-
코스피 대형주	7,250	50,421,401	-1.1	-23.1	3.2	31.2	122.6	65.6	-	-	-	-	-	-	-
코스닥	720	4,001,983	-3.8	-21.4	-39.6	-37.4	-10.6	-22.2	-	-	-	-	-	-	-
코스피 중형주	3,677	3,159,071	-6.1	-11.7	-27.9	-11.5	3.9	-1.2	-	-	-	-	-	-	-
코스피 소형주	2,201	834,290	-2.6	-4.3	-27.2	-16.9	-11.6	-12.6	-	-	-	-	-	-	-
유통															
코웨이	91,500	64,752	-0.3	1.3	6.3	9.7	-16.0	5.3	10.7	8.9	7.7	1.8	1.5	1.3	
호텔신라	43,550	17,093	-7.5	-7.6	-33.5	-5.7	-7.1	-2.4	-12.1	14.8	10.9	1.5	1.4	1.2	
BGF 리테일	125,000	21,605	1.3	7.9	-5.3	3.0	10.5	19.3	11.5	9.6	8.6	1.7	1.5	1.3	
GS 리테일	24,750	20,693	-3.9	5.3	5.3	11.7	51.8	23.1	14.0	10.2	9.1	0.6	0.6	0.6	
롯데쇼핑	117,300	33,183	-6.8	-30.9	-13.3	39.6	63.4	61.8	42.3	8.8	7.5	0.2	0.2	0.2	
신세계	423,000	39,953	-16.1	-44.0	3.9	32.4	146.2	71.3	39.4	10.3	8.9	0.9	0.8	0.7	
이마트	79,800	22,021	-3.0	-3.2	-25.2	n/a	-10.6	-1.9	6.8	17.5	9.7	0.2	0.2	0.2	
현대백화점	118,800	25,619	-8.3	-38.7	9.1	26.8	68.0	34.1	11.8	9.0	7.1	0.6	0.5	0.5	
SK 네트워크스	7,320	14,683	-4.7	-27.2	24.7	30.7	60.2	62.0	30.2	17.0	20.1	0.7	0.7	0.7	
인터넷															
NAVER	208,000	326,444	0.2	4.5	-1.4	-24.4	-11.5	-14.2	15.2	17.4	14.4	1.1	1.1	1.0	
카카오	37,400	165,675	3.3	8.3	-20.9	-39.1	-35.5	-37.8	30.8	24.0	20.4	1.5	1.4	1.3	
게임															
크래프톤	243,000	112,115	0.2	3.0	-8.3	-4.3	-26.0	-1.2	13.1	12.0	9.1	1.4	1.3	1.2	
넷마블	38,300	31,381	3.8	2.5	-22.9	-27.5	-35.7	-20.6	10.4	7.5	9.6	0.6	0.5	0.5	
NC	234,500	50,521	2.9	-8.9	-13.3	0.0	21.1	16.4	14.1	10.9	10.0	1.3	1.2	1.1	
펄어비스	33,200	20,864	0.9	-8.3	-43.6	-42.0	-15.0	-11.2	-239.3	5.9	12.4	2.6	1.7	1.5	
카카오게임즈	7,970	8,508	4.2	2.7	-33.7	-55.1	-53.6	-46.5	-5.3	-7.3	-109.8	0.6	0.8	0.8	
더블유게임즈	60,100	12,725	-1.2	-5.7	-1.6	12.3	7.3	12.1	8.7	6.5	5.6	0.9	0.9	0.8	
NHN	37,100	12,151	1.9	5.4	-9.5	14.9	29.3	27.7	34.4	10.7	8.7	0.8	0.7	0.7	
웹젠	11,770	3,645	0.0	1.8	-3.2	-32.0	-19.7	-8.8	14.2	n/a	n/a	0.5	n/a	n/a	
컴투스	29,600	3,579	13.9	13.6	-9.6	-19.8	-23.5	1.9	75.0	20.7	10.3	0.4	0.3	0.3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130,000	76,041	10.2	23.0	-3.9	-6.3	-3.5	8.8	33.5	24.2	21.0	1.7	1.6	1.5	
LG 생활건강	287,000	42,980	15.5	25.1	13.0	9.3	-9.2	11.0	39.7	21.8	17.7	0.9	0.9	0.8	
실리콘투	33,950	22,263	-3.7	7.3	-22.8	-35.9	-34.3	-12.2	12.3	9.8	7.9	4.9	3.4	2.4	
아모레퍼시픽홀딩스	25,500	19,497	5.4	17.0	-8.4	-11.2	-17.9	-5.0	15.7	n/a	n/a	0.7	n/a	n/a	
한국콜마	95,200	22,472	-5.0	-4.3	7.3	36.2	-2.4	53.3	21.7	12.9	10.9	2.5	2.1	1.8	
코스맥스	184,700	20,963	3.5	19.2	-12.3	-8.8	-26.6	13.3	36.3	14.0	11.6	4.2	3.2	2.6	
브이티	11,690	4,085	1.0	1.4	-31.1	-43.3	-67.6	-33.2	6.8	7.2	6.4	n/a	1.4	1.1	
코스메카코리아	78,800	8,416	-2.4	14.2	-2.7	-18.3	16.7	18.3	17.2	12.2	10.6	3.2	2.7	2.2	
씨앤씨인터내셔널	17,900	2,440	-1.3	-16.2	-39.7	-53.0	-59.6	-39.6	10.9	13.3	12.0	1.2	n/a	n/a	
클리오	10,820	1,955	8.7	12.7	-18.6	-18.4	-28.1	-17.0	14.2	9.5	8.8	n/a	0.7	0.7	
한국화장품제조	7,860	1,781	1.4	-4.0	-22.2	-20.9	-38.6	-19.6	n/a	n/a	n/a	n/a	n/a	n/a	
아이패밀리에스씨	7,550	1,259	-8.4	-4.2	-30.1	-49.8	-53.1	-44.7	5.4	6.7	5.7	1.1	n/a	n/a	
마녀공장	15,530	2,546	3.2	3.1	-2.6	7.9	-13.1	13.4	n/a	n/a	n/a	n/a	n/a	n/a	

자료: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주: 2026.7.31 종가 기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오린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Overweight (비중확대)			
	업종 비중 기준	Neutral (중립)			
	투자등급 3단계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Buy (매수)	+15% 이상 기대	90.3%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pm 15\%$ 로 변경
	투자등급 3단계	Hold (보유)	-15% ~ +15% 기대	9.7%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7. 1 ~ 2026. 6.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